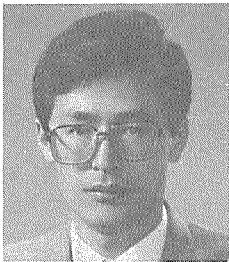


企業의 東歐 진출여건 조성 방안



정 중 애
IPECK 전문위원/경제학박사

동구국가는 지금까지 Comecon체제내의 산업특화정책에 따라 국별로 특화된 산업이 있으며 동구국가 역시 이러한 산업에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동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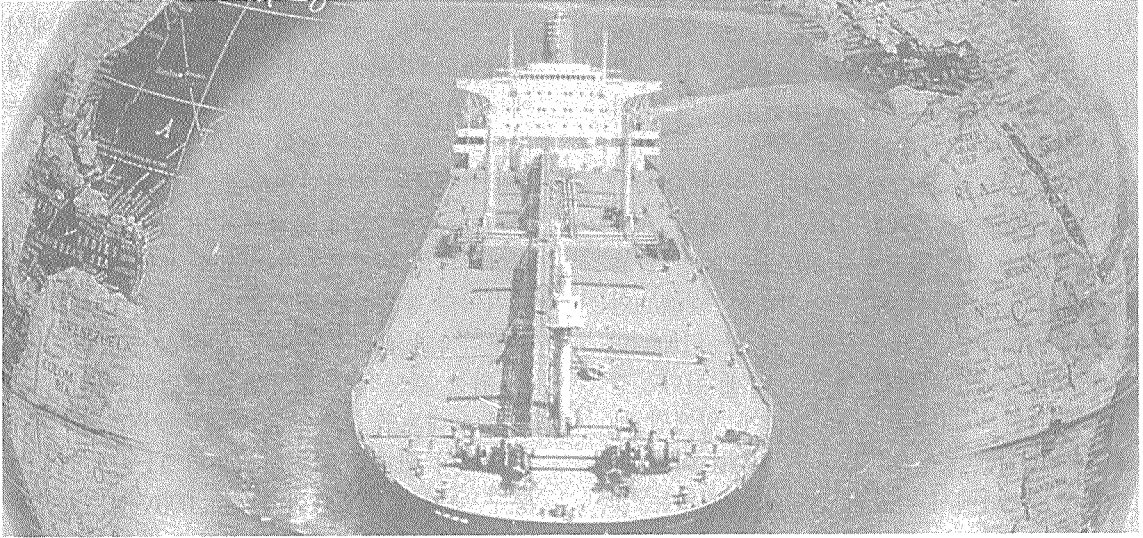
1 동구의 현실

1) 동구의 개혁

1985년의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계기로 시작된 동구의 개혁은 '89년과 '90년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폴란드에 비공산주의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을 출발로하여 헝가리와 체코에서도 비공산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동구의 개혁은 전 동구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과거의 공산당세력이 잔존하고 있지만 다수당을 인정하고 자유선거에 의한 집권이라는 점에서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한다. 동구에서 유일하게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알바니아도 정치적인 자유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스탈린주의의 포기선언, 야당의 설립허용, 다당제도입, 복수후보제를 허용한 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91년 2월 10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 진다면 동구의 모든 국가는 국제경제와 시장경제로 편입하려는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東歐地域에서 政治·經濟的 變化는 빠른 속도로 進行되고 있어 舊體制에 따른 조직, 법등은 거의 매일 사라져가고 있다. 拔進的인 改革프로그램은 경제의 進분야에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實質賃金の 下落과 失業增加를 통하여 국민들의 日常生活에 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政府들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가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건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동구의 개혁에 대한 肯定論과 悲觀論이 혼재하고 있다. 肯定的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로 향하고자하는 그들의 역량과 인적자원의 수준을 들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悲觀的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一般國民과 機關들이 이러한 역량을 건설적



'89년과 '90년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91년에도 교역증진은 50% 가량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改革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지역의 국가들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 할 수 없으나 개혁의 속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는 多元적이고 民主的인 國家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타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改革을 추진하고 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대체적으로 개혁에서 뒤떨어져 있고 이에 반하여 유고슬라비아는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만 共和國間의 분쟁에 휩싸여 구체적인 개혁을 진척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市場經濟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보면 헝가리가 가장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政策의 수행면에서는 여타 국가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도 '90년 12월부터 기존의 消極的인 개혁정책에서 積極的인 개혁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조짐을 여러 곳에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동구의 孤島인 알바니아를 제외한다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장 느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동구 경제동향

이들 東歐國家들은 현실적으로 상이한 經濟與件下에 있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양국은 충격요법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틀거리고 있으며 또한 이 두 국가는 과중한 대외부채를 안고 있다. 헝가리는 과중한 대외부채를 안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經濟는 改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부채를 갖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역시 經濟가 改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련은 對外支拂能力面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 이는 財政赤字에 따른 루블화폐의 濫發로 貨幣價値의 하락이 이의 主된 原因이라 볼 수 있다. 루마니아는 對外負債는 없지만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최근 비엔나의 比較經濟研究所의 報告書에 따르면 '90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舊東獨地域에서 産業生産規模와 GDP(國內總生産)가 각각 19.5%와 13.8%가 감소 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폴란드와 같이 持續的으로 需要抑制政策을 실시한다면 有効需要不足에 따른 경기침체효과를 가져와 經濟構造調整의 推進力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지역 전반적인 특징을 든다면 世界經濟에 빠른 편입을 추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대외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어려움도 散在해 있다. 이 지역 生産者들의 낮은 生産性과 技術水準이 이 지역이 세계경제로의 빠른 진입을 추구하는데 가장 큰 障礙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 Comecon 체제가 '91년 3월 안에 해체될 전망이다. 東歐國家들의 相互補完的인 貿易協力體制가 瓦解된다면 겪어야 하는 經濟的인 충격여파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러한 追加的인 여파를 흡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걸프전쟁에 따른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게 될 地域이라면 또한 동구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유고와 루마니아에서 약간의 원유를 생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국가들이 석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거 소련으로부터 原油供給의 결과로 중화학공업에 치중하여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70년대에 있었던 두차례의 유류파동을 경험하지 않아 저에너지 소비형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아직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다.

이에 더해 '91년 1월 1일 부터 소련은 동구지역 내의 決裁通貨가 아닌 硬貨로 원유를 동구지역에 공급하기 때문에 동구국가의 경화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타 産業發展을 위하여 수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경화지출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아직 私有化가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市場經濟가 기능을 하지 않는 현실에서 유가의 상승이 갖고 오는 여파는 원유절약을 위한 배급, 또는 절전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構造調整을 위한 産業構造再編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91년에도 持續的으로 失業이 增加하고 낮은(심지어는 마이너스) 經濟成長이 예상되나 計劃經濟를 탈피하여 市場經濟와 國際經濟로 編入하려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私有化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유화추진에 있어 '90년에 이루어진 실험적인 부분시행방법을 탈피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유화 시도가 예상된다.

3) 한·동구 경제관계

한국경제는 현재 미국과 EC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상마찰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고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경제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시장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장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지역으로는 개도국과 북방국가가 있는데 최근 북방국가와의 무역구조의 변화를 볼때 우리는 북방지역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여야 한다. 동구각국과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상호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동구 교역은 '88년을 전기로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다. '9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대동구 교역액은 수출이 4억 7,000만불, 수입이 1억 9,400만불로 전년도 동기대비 각각 134.1%와 77.2%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2억 8,000만불 가량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활발한 교역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순이며 이들 국가로부터 한국은 주로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제품, 섬유제품을 수출한 반면에 이들 국가로부터는 화학, 기계, 금속제품을 주로 수입하였다. 무역구조로 보면 상호보완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기업의 동구진출을 보면 삼성전자가 헝가리에 칼라TV 합작공장을 설립하였고 종업원은 200명 수준이며 자본금은 330만 US\$이며 현지 오리온사와 50:50의 합작공장을 건립하여 '90년 4월초 생산을 개시하였다. 현대전자산업은 폴란드에 Hyundai-Selkd Industries LTD. 를 50:50의 합작투자형태로 무역업 및 컴퓨터주변기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대우도 헝가리의 Investure Co. 와 합작하여 이미 금융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이어서 부다페스트에 있는 세인트스테판호텔 건설 및 운영에 50:50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금성사는 헝가리의 Konsumex와 전자제품 현지 직판센터를 '90년 5월에 개점하였다. 이와 같이 교역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 직접투자와 합작투자 건수와 금액면에 있어서 국내기업의 대동구 투자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표1: 동구 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88	'89	'90(1~11月)
總 計	計	214, 890 (44. 7)	388, 473 (80. 8)	665, 165 (114. 0)
	輸出	125, 573 (22. 7)	270, 695 (115. 6)	470, 401 (134. 1)
	輸入	89, 317 (93. 3)	117, 779 (31. 9)	194, 764 (77. 2)
헝가리	計	32, 130 (41. 7)	68, 084 (111. 9)	104, 292 (69. 6)
	輸出	20, 692 (38. 1)	48, 986 (136. 7)	82, 063 (84. 0)
	輸入	11, 438 (48. 2)	19, 098 (67. 0)	22, 229 (31. 7)
폴란드	計	42, 368 (60. 4)	74, 095 (74. 9)	165, 321 (142. 0)
	輸出	27, 121 (29. 8)	56, 126 (106. 9)	85, 047 (62. 2)
	輸入	15, 247 (176. 1)	17, 969 (17. 9)	80, 274 (405. 7)
유고	計	33, 952 (86. 9)	66, 778 (36. 7)	224, 183 (269. 7)
	輸出	16, 631 (4. 1)	46, 652 (180. 5)	183, 709 (345. 1)
	輸入	17, 321 (693. 8)	20, 126 (16. 2)	40, 474 (109. 1)
체코	計	34, 544 (148. 1)	103, 379 (199. 3)	69, 256 (43. 2)
	輸出	23, 367 (173. 1)	79, 483 (240. 2)	50, 021 (91. 7)
	輸入	11, 177 (108. 3)	23, 896 (113. 8)	19, 235 (-13. 7)
불가리아	計	9, 164 (169. 8)	28, 952 (215. 9)	35, 835 (34. 1)
	輸出	5, 543 (332. 7)	17, 848 (222. 0)	16, 559 (2. 0)
	輸入	3, 621 (71. 2)	11, 104 (206. 7)	19, 276 (83. 7)
동독	計	36, 489 (-14. 3)	27, 828 (-23. 7)	42, 396 (62. 4)
	輸出	28, 865 (-23. 2)	20, 940 (-27. 5)	32, 246 (64. 0)
	輸入	7, 624 (51. 4)	6, 888 (-9. 7)	10, 150 (57. 4)
루마니아	計	25, 652 (20. 1)	19, 023 (-25. 8)	23, 882 (26. 5)
	輸出	2, 763 (-10. 4)	342 (-87. 6)	20, 756 (6, 639. 0)
	輸入	22, 889 (25. 2)	18, 681 (-18. 4)	3, 126 (-83. 2)
알바니아	計	591	334 (-43. 5)	-
	輸出	591	318 (-46. 2)	-
	輸入		16	-

자료: 상공부,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동구진출 여건 조성 방안

1) 동구진출 여건

폴란드, 헝가리, 체코, 유고 등의 국가는 정치·경제개혁이 상당수준 진전되어 있고 '91년에는 사유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개혁의 초기단계에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구사회주의체제로 역행한다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소련의 보수회귀 가능성과 중국의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와 비교한다면 정치적인 변혁에 따른 경제혼란

상태의 유발은 없을 것이며 경제적인 혼란이 도래한다면 단지 경제적인 개혁정책의 실패와 국제적인 환경에 따른 문제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구체제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높은 대서방 부채(루마니아 제외), 경화부족, 태환성결여(폴란드, 유고제외), 정치불안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저조,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법령 및 제도미비 등으로 진출여건이 양호하지 못하나 폴란드, 유고, 헝가리와 체코는 금융제도 및 법령을 개선하여 투자진출을 위한 여건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동구가 우리에게 주는 또다른 매력은 신시장, 저임

금, 숙련된 노동력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대동구 투자와 교역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선 서방선진국의 지원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서방의 경제적인 지원 중 국제기구를 통한 동구지원을 종합해 보면 G-24는 '89년 9월 이후 차관투자보장, 식량원조 또는 무상원조의 형태로 약 110억 달러 규모를 동구에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IBRD는 향후 3년에 걸쳐서 약 50억불은 동구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90년 2월 IMF는 7억 2,300만 달러 규모의 대폴란드 차관을 승인하였고 유고와는 6억불 규모의 대기성차관협정체결을 발표하였다. 헝가리도 2억 600만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을 IMF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다. '91년 하반기부터 지원될 유럽개발은행(EBRD)의 출자금 120억 달러를 합하면 현재 이미 구체화된 것만도 3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EBRD프로그램을 제외한 기존의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은 현재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개방의 정도에 따라 여타 동구국가에도 확대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지원의 증대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무역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러한 원인을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계획경제하에서 개인의 이익추구 동기가 부정되었다는 것과 둘째는 소비재 공급애로로 인하여 일반대중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소득을 구매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구국가의 저축률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저축률 : 폴란드 32.0% '87, 헝가리 30.3% '88, 루마니아 38.3% '86). 저축에 축적된 사장된 구매력을 활성화한다면 동유럽은 향후 수년간 개인 소비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시장경제가 도입된다면 개인의 이익동기와 수입증대동기가 유발될 것이므로 이것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현재 동구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서방의 새로

운 생산기술, 투자를 통한 고용의 증가, 자본주의식 재무관리, 노무관리, 기업경영법 습득이다. 반면에 서방의 기업은 교역과 투자증대에 따른 이윤증대의 기회를 찾고 있다. 현재 낙후되어 있는 동구의 생산체제는 개혁을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변혁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서방과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밖에 없다. 사유화가 추진되면 대부분의 새로운 민영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일 것이 예상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분과 과실송금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 민간기업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유화 이후가 투자의 적기일 것이다. 그러나 적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투자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진출의 필요성

동구지역은 개혁의 진전과 함께 '90년 Comecon 국가간에 유지되어오던 결제방식에서 탈피하여 역내거래에서도 경화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화결제가 이루어지면 역내 시장가격이 급속히 국제가격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방과의 무역이 급속히 신장할 가능성이 있다. 급속히 확대되는 동구시장에 선점 및 동참하는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유럽자유무역지대(EFTA)와 EC를 포괄하는 새로운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의 설립에 대한 구상과 독일통일에 따른 중부유럽경제권의 부상은 동구시장이 유럽의 일부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92년 EC 통합이 이루어지면 역외지역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EC에 진출을 위한 우회진출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동구지역에 대한 진출은 의미를 둘 수 있다.

독일통일을 통하여 과거 동독지역이 자동적으로 EC에 편입되었으며 동독지역과 과거 Comecon 국가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화폐, 경제, 사회통합 조약('90년 7월 1일 시행)을 통하여 확약하고 있기 때문에

동독지역에 대한 진출은 EC 및 동구진출을 위한 기지로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 12월 유럽공동체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유럽공동체에 한발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그동안 동구국가들 중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주목되어 오던 이들 중부 유럽 3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 같다. 이 결의에 의하면, EC 위원회는 올해 안에 "유럽협정"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쌍무협정을 이들 3개국과 체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유럽협정"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게 일종의 EC 준회원국지위를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92년 초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89년과 '90년의 변혁기에 겪었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시장잠재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구지역의 교육수준이 높고 위에서 열거하였듯이 만성적인 공급부족상태로 인하여 축적된 저축이 상당부분 있고 개인보유 외환이 많기 때문에 동구의 시장잠재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그들의 높은 기술적인 수준이 상업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화에서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노동력의 생산성 증대도 기대된다.

'89년과 '90년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91년에도 교역증진은 50% 가량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기업의 대동구투자는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 폴란드, 헝가리, 유고 등에서 일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우대관세의 철폐나 수입쿼터제 실시 등의 조치가 발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수출 역시 위축될 소지가 있다. 또한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투자진출에 대한 위험이 수반되나 교역확대와 투자진출을 통한 해당국의 시장환경에 익숙해 진다면 장기적인 시장으로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투자진출 여건 조성방안

경제협력기반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폴란드, 유고, 체코, 불가리아 등 아직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다면 한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헝가리 간에는 이미 정부간 경제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여 정부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폴란드, 유고, 체코 등과 경제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상호 경제협력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와의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유고, 루마니아와도 민간경협위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경제진출강화 방안을 보면 한국의 전략상품(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신발류 등) 수출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계류 및 화학제품과 같은 수입품목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구국가가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합작투자분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진출여건의 미성숙에 따른 위험성과 투자정보의 미숙을 감안하여 1-2개 정도의 Pilot 사업을 선정, 시범적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유망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공동조사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간 협의기구와 민간경협위를 활용하여 세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ilot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예를 들면 정부의 보증과 지원으로 각각의 동구국가에 대하여 처음 투자진출하는 기업과 민간경협위 등이 공동사업으로 투자절차, 법적인 제약, 투자법규의 활용, 임금, 노동환경, 손익분기점까지의 기간, 판매망, 원료공급측면에 있어서 애로사항, 운송체계, 현지인의 직업형태와 작업능력, 이익금의 본국송금 등을 현지에서 선발투자기업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후발투자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하여 후발기업의 투자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하고 투자의 애로사항과

장점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하고자 함에 있다.

'91년 4월중순 발족이 예상되는 유럽개발은행(EBRD)은 출자금 100억 ECU(약 120억 달러) 규모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이다. 한국은 0.65%(6,500만 ECU=약 7,800만불)의 출자비율로 참가하며 이는 EC와 EIB(유럽투자은행)을 포함하여 투자규모에 있어서 28번째가 된다.

한국이 EBRD에 가입함에 따라 그간 국가대 국가간의 쌍무적인 관계로 진전되어온 대동구권과의 경제협력관계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의 협력관계로 변화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또한 EBRD에 참여함에 따라 대동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수집이 용이해지며 또한 동은행의 지원프로젝트에 참여를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체코, 헝가리, 과거동독지역과 불가리아는 분야에 따라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의 상업화에 있어서는 중앙계획경제의 실시로 인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서방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에 따라 기술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외경쟁력의 확보와 수출증진에 일종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는 동구국가들의 기술을 도입하여 상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도입에 따른 비용도 서방선진국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북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동구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던 1차적인 단계인 정치적효과를 얻기 위한 단계는 소련과의 국교수교를 이룩함으로써 이미 달성하였다. '91년 부터는 2차적인 단계로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2차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구권에 대한 기초연구의 확대와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 현지언어를 습득한 연구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북방에 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각 대학에 북방관계의 연구소가 설립되기도 했지만 외부의 지

원없이 자율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는 연구사업이 주로 정책지향적인 단편적인 연구에 그친감이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을 중심으로한 심층적인 연구도 기대되고 있다.

4) 분야별 진출방안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동구의 소비재산업이 취약하다는 점을 우선 감안하여 전자제품, 섬유, 신발, 자동차 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전략상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화부족사태에 따른 수출확대의 한계를 고려하여 대체수입품목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유고에 금년 6월 구매사절단을 파견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구매가능상품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구 국가의 자금부족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인 불안정, 정보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민간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연불수출자금의 활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자금의 회수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고 경화수입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호텔 및 서어비스 분야에 초기단계에서 진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개혁추진 이후 동구국가에서는 낙후된 경제적인 하부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하부구조에 대한 건설은 대부분이 국제금융기관의 도움과 해외투자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며 주로 통신, 건설, 항만 등의 분야일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자금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독일 및 일본 등과 공동진출 방안과 EBRD 프로젝트 참가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동구국가는 지금까지 Comecon 체제내의 산업특화정책에 따라 국별로 특화된 산업이 있으며 동구국가 역시 이러한 산업에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동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